

보도	배포시	배포	2026.7.16.(목)	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박상만	(02-3145-8170)
		담당자	팀 장	김은성	(02-3145-8180)

금감원,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

- 금융감독원은 7.16일(목) 이찬진 원장 주재로 ‘금융상황 점검회의’를 개최하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5bp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음
- 이찬진 원장은 금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나,
 -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중동지역 불안 지속 및 美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
- 이에 따라,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, 취약차주 금리 부담 상승 등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문별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음
 - 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 가능성을 점검하고,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필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
 - ② 금리 상승에 따른 중·저신용자, 영세 소상공인, 취약 기업 등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 영향을 점검하고, 은행권의 생산적·포용금융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

- ③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연체 정리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 지도
- ④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중소형 금융회사의 유동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, 필요시 선제적인 유동성 확충 유도
- 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반대매매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증권사별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하고, 이상징후 발생시 적극 대응
- ⑥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자산·부채 듀레이션갭 축소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
- ⑦ 외환시장 24시간 개장*에 따라 환율 동향 및 거래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·운용 여건 등을 상시 점검

* '26.7.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(기존)2시 종료에서 (변경)24시간 운영(월 6시~토 6시)으로 확대

- 마지막으로, 이찬진 원장은 국내 실물 경제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우리 경제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,
 - 금융시장 안정,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